

노임단가 평균 4.6% 올라

2005년도 인쇄직종에 적용될 평균 노임단가는 지난해 보다 4.6% 오른 4만2300원으로 발표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적용 제조부분 직종별 노임단가에 따르면 인쇄업 중 가장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 받은 직종은 전자편집디자인으로 4만7871원으로 지난해(4만4551원)에 비해 무려 7.5%나 증가했다. 반면 가장 낮은 노임단가를 적용 받은 직종은 활판인쇄공으로 3만7011원으로 지난해(3만4702원)에 비해 6.7%나 증가했으나 활판인쇄 수요가 적어 노임단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 받았던 스티커인쇄공은 4만7186원으로 지난해(4만4604원)에 비해 5.8% 증가해 전자편집디자인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 전산용지정합공 3만7637원(4.4%), 스캔기능공 4만4545원(2.6%), 교정사 4만241원(3.3%), 전자조판공 4만2262원(4.7%), 사진제판공 4만2695원(2.3%), 오프셋인쇄공 4만4537원(4.6%), 제본공 4만2742원(4.3%), 지류재단공 3만9606원(5.4%), 금박공 3만7683원(5.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임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300인 이하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4년 9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총액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은행 中企대출 증가액 사상 최저

작년 한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연간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41조6천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2조9천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상 매년 12월 연말요인으로 인해 신규대출보다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며 2003년의 경우 12월 한달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조4천억원이 감소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해 전체로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0조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기업대출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부진한 실적에 해당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1999년에 35조8천억원이 증가했으며 ▲2000년 14조4천억원 ▲2001년 11조4천억원 ▲2002년 37조원 ▲2003년 34조8천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내왔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저

치인 2001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높아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엄격한 여신관리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수보험’ 확대 시행

외국인산업연수보험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신규시행을 골자로 한 산업연수보험을 확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상해보험, 체불방지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으로 세분화된 산업연수보험은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연수생이, 나머지 상품은 연수업체가 부담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를 고용한 연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체불방지보험은 1년의 연수시간을 포함, 2년의 취업기간까지 보장하도록 확대됐다. 상해보험은 3년 체류기간 중 1회분 송출기관을 통해 징수하고 체불방지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체불 연수수당 및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며 연수업체에서 납입한다. 또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정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형태로 보장받아 외국인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세 中企 소액특례보험 6개월 연장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신용보증기금의 소액특례보험 제도가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 운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어음 인수액에 대해 연 3%의 요율이 적용되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90일인 1천만원짜리 어음의 경우 보험료는 5만1780원이며 부도가 났을 때 700만원까지 보상된다. 건당 어음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 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 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인수해주고 계약자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의 어음은 계약자당 최대 가입한도가 5천만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협동조합에 소속된 기업만이 기협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바꿔 300만 중소기업에 문을 개방하겠다”며 “모든 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협중앙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명칭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대통령도 중소기업 분야를 올해 국정운영의 우선과제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계도 국가경제의 중추라는 자긍심을 갖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올 중소기업 7천억 융자

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 7천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500억원에 비해 500억원 늘린 규모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경기회복과 고용효과 창출을 위해 증액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장석명 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7300여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규모를 늘린 만큼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동안 연리 5.5%로 운용한 경영안정기금의 금리를 4.7%로 0.8% 포인트 인하하고 시설자금 금리도 5.0%에서 4.5% 내릴 예정이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일단 상반기 자금으로 3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안정 기금 1890억원, 시설자금 161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15일자 공고를 거쳐 17일부터 접수한다. 융자신청은 시내 지역별로 설치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등 9곳에서 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다.

중소 활약 드라마 제작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하나로 성공사례 등 중소기업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 관계자

는 현재 청년실업자가 40만명에 육박하지만 ‘3D업종’이라는 등의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기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TV 드라마 제작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협은 이미 드라마 제작시 소용비용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는 새해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중기청은 창업지원법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공장을 설립할 때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16개 인허가 사항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태껏 창업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토목건축설계 환경성검토 등 각종서류를 구비해야 시군구 창업민원실에서 창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단지 사업계획서 하나만으로 공장설립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술신보 중소기업에 올 11조 보증

정부가 벤처육성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1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보는 올해 중점지원 대상인 기술평가보증을 창업초기기업에 8천억원,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1조 7천억원 등 총 2조 5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벤처시장 참여자간 자기책임 강화를 위해 투자연계형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보증 2조 8천억원을 비롯, 혁신신도형기업에 총 6조 8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보증에 7천억원, 납품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론 보증에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보는 특화분야인 기술평가에 집중, 기술평가보증을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 5천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기준 15%인 기술평가보증비중을 올해는 25%,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정책자금 지원 받기 쉬워진다

올해부터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매출액·이익 등 재무제표가 좋지 않더라도 미래 기업가치 위주로 별도 산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는 정책자금도 지난해 4800억원에서 올해 1조2450억원으로 증가, 그만큼 대출받기가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은 3조원 규모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1월10일부터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할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1조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소상공인창업자금 5100억원, 협동화사업자금 240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규모를 1조2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50억원 늘렸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중진공→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행 등 3개 기관을 거쳐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올해 5500억원 지원

1만개에 이르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5500억원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이 우선 배정된다. 또 핵심선도형 중소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조8천억원의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대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대통령이 제시한 3만개의 혁신형 중

소기업 육성책과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비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책정된 1조3천억원 중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5500억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의사소통 원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조직 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2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90.4%가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은 70.7%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내 상하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는 ‘업무과다에 따른 시간부족’이 34.1%로 가장 많았고 ‘상사의 관료주의’와 ‘상하 갈등’ 등이 뒤를 이었다. 부서간 의사소통 장애로 대기업은 ‘부서간 이기주의’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중소기업은 ‘업무과다에 따른 시간부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문화는 성공적 경영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성공에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관료주의 행태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쇄시설 및 서점 현대화 관련

문화부, 문산기금 100억원 지원

문화관광부는 인쇄 및 서점 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고 선진할 수 있도록 올해에 문화산업진흥기금 100억원을 중소형 서점 전문화 및 인쇄시설의 현대화 분야에 용자 지원한다. 또 서점 및 인쇄사의 용자 소요가 많을 경우 용자 자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 용자 지원 방안을 보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유통업체 및 중소형 서점을 위해 서점 시설 현대화 및 전문화 용도로 70억원, 인쇄업체에 대해서는 인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인쇄시설 및 기기 구입 용도로 30억원을 용자 자금으로 배정하였으며 용자 조건은 연리 4.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용자 신청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

원 (02-2166-2042, <http://ct.kocca.or.kr>)에서 년중 접수받으며 매월 1~10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말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용자가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관련 서류 등 세부 용자 신청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3704-9639)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02-735-2701), 한국서점조합연합회(02-927-1437), 대한인쇄문화협회(02-335-5881) 등 관련 단체에서 안내한다.